

질높이기 핑계, 문화공간 규제 단순 발상

장삿속 위주의 저급흥행도 반성해야

올해를 '연극·영화의 해'로 정하고 연극·영화 중흥에 힘쓰겠다고 한 정부가. 최근 풍속 영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의 입

M·T 참여 강요 부담 작은 자들부터 이뤄야

새학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불어닥친 M·T 열기가 중간고사 종료와 함께 다시 시작됐다. M·T의 참의미는 구성원들간의 연대의식을 높이고 신뢰를 지키는 일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M·T는 대학 문화를 대변하는 하나의 요소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M·T는 본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져가고 있는 듯 하다.

자주·자율이라는 말을 '민주'만 큼이나 자주 쓰는 선배들이 자율적인 참여를 무시한 채 반강제적인 M·T 참여를 요구한다. 대학에 들어오면 진정한 자율·자주인 이 되리라고 믿어왔던 신입생들 에겐 그와같은 협박(?)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의문이다. 참여라는 문제가 자율을 배제시킨 강제성을 갖을 수는 없지 않은가. 문득 '성경을 읽기 위해 촛대를 훔칠 수 없다'는 서양속담이 생각난다. 진리를 구하기 위해 진리를 배반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요즘의 M·T는 지나치게 소비적이다. 선배들이나 전우들의 적 당한 술 몇잔은 귀중한 대화의 윤활유가 될 것이 분명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섰을때는 인간적인 상실감까지도 불러올 수 있지 않겠는가.

성준희
(외대·영문)

법화를 예고하고있어 손발이 맞지 않는 국정의 한면을 보이고 있다.

1백50억 이하인 영화진흥 소극장과 지하층에 위치한 3백석 이하의 소극장은 영화상영을 할 수 없게 한다는 이번 법은 우리 주위에 널리 퍼져 있는 소극장문화

에 전면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는데 그 문제가 있다. 즉 이번 법이 입법화되어 시행된다면 전국 5백44개 소극장 가운데 2백41개의 극장이 문을 닫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밝힌 이 법의 입법의도는 건전한 문화공간이 되기위해

서 그 공간이 지상으로 나와야 하고 보다 넓은 공간을 조성하고 음침하고 폐쇄적인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라 한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 누리는 문화공간의 주변요건을 되쳐 보자면 위의 의도는 너무도 단순한 발상일 수 밖에 없다.

거리는 사람과 차들로 가득차고 마음편히 쉴 휴식공간 하나 찾아볼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때 소극장이 부족한 문화공간을 부분적이나마 보완해줬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문화공간을 더 확충하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없애려하다니 기본적인 인식조차 모자라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문화공간으로서 영화관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국민들의 성숙된 문화인식의 함양차원에서 영화예술의 질높은 보급을 강화하려는 쪽으로 이번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김대영
(원자·3)

패기로 넘치는 축구부

지난 겨울의 삭막함은 어느덧 사라지고 캠퍼스에는 초여름을 느끼게 하는 신록의 물결이 출렁이고 있다. 신록은 체육인에게 있어서는 흥분을 자아내고 트레이닝으로 갈아입고 마음껏 뛰고

있는 충동을 느끼게 한다. 왜냐하면 운동장 즉, 그라운드와 대명사로써 녹색이 흔히 사용되기 때문이다. 수십년동안 녹색그라운드에서 경화를 상징하는 자주색의 돌풍을 일으키며 박 종환 박창선·이영무·박 수덕·백 종철등 수많은 선수들을 배출해낸 축구부는 1955년 4월 신홍대학(경희대)축구부가 발족되어 창단 원년에 제10회 전국 대학축구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는등 70년대까지 거의 독주대를 이루어왔다. 경희 축구부의 특색은 공격·허리 수비진이 고르게 안정되어 있으며 전원 공격 전위수비로 뛰지 않고 젊음의 패기로 넘쳐 있다는 것이다.

천병옥
(체육·4)

“커피·콜라 파는 학내 자판기 어색”

—정상대 국산차 마시기 운동을 보여

움직임을 보였는데에 같은 대학인으로서 호응하고 기쁘다. 아울러 교내에서 가끔 보였었던 “커피콜라를 마시지 마시다”라는 플래카드와 커피와 콜라를 판매하는 자판기에 쓰인 인복위의 이름 사이에 묘한 모순을 생각해 된다.

한때뿐이던 국산차 자판기가 가동되었을 때는 이미 낡은 입맛이지만 가끔 우리 독자가 우려나올 기다리면서 운치있게 마셔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조차 몇달전부터 도서관 매점의 흥물이 된지 오래다.

얼마전 인복위에서 돌린 설문지를 작성했는데, 불합치초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그 노력에 격려를 보낸다. 여기에 조금 덧붙여 부탁하고 싶은 것은, 대학내에 건전한 생활문화를 이끌어 나가야 할 주체인 인복위가, 작지만 분명히 필요한 주위의 일

부터 실천하며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산차마시기운동과 같은 것이 구체적인 좋은 본보기가 아닌가 싶다.

박경규
(경영·3)

등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 ▲양영오(문리·89) ▲손영준(화학·2) ▲김명석(화학·1) ▲박혜숙(국문·88) ▲이명숙(사학·2) ▲유보영(지리·4) ▲김종균(생물·4) ▲김학경(경영·2) ▲김정규(회계·4) ▲정찬(무역·4) ▲김재원(미교·3) ▲김정희(성영·1) ▲한소록(의상·3) ▲심원준(의문·2) ▲김동욱(한외·3) ▲이승기(한외·2) ▲차은석(한외·2) ▲임상영(지문·4) ▲윤순옥(약학·4) ▲심현희(무용·1)

【수원캠퍼스】 ▲박재현(행정·1) ▲이진민(행정·1) ▲전영희(화학·1) ▲윤진규(화학·4) ▲김재현(토목·2) ▲이정혁(토목·4) ▲구병두(원자·3) ▲김강원(원자·4) ▲최영(기계·4) ▲장은석(전산·3) ▲김철만(전자·4) ▲임정희(건축·1) ▲이수호(환경·4) ▲이호(수학·3) ▲문병문(물리·1) ▲권수민(요공·2) ▲박경택(애지원 412호) ▲조성일(애지원·509호) ▲김재현(애지원 407호)

동문모임

평택동 동문회

【서울캠퍼스】 ▲정주일선영고=오는 6일 오후5시, 체대와 녹원 ▲대구영고=오는 7일 오후6시, 체대와 녹원 ▲상문·문광=오는 7일 오후6시, 불세대방 ▲평택고·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에서는 성실히 들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200자 원고지 4~6매
◇보낼곳: 서울·수원(본사편집실)

도서관 이용 시간 불편

저는 신입생이라는 딱지를 이제 겨우 떼어낸 대학 햇병아리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생활의 불편함이 있어 여운난에 적어보고자 합니다.

아직 중앙도서관이 완공되지 않아 서적들이 공과대학과 외국어교육관 내 도서관에 나누어 소장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얼마전 외국어 대학관 도서관을 찾은 적이 있는데 점심시간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고 도서관 문은 굳게 닫혀있었습니다.

물론 사서선생님도 식사는 하셔야겠지요. 하지만 점심시간이라고 도서관을 폐쇄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일입니다. 도서관은 자유로운 학문탐구의 보금자리(場)로 필요할때면 언제든지 수시로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오히려 도서관은 학생들의 이용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창출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학교 도서관의 경우는 개관시간이 짧고 더구나 점심시간마저 폐쇄시키고 있어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서선생님의 인원이 업무량에 비해 적기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일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발전이 작은 것에서부터의 봉사로 시작한다면 우리학교의 발전을 위한 구성원들의 행동양식은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융통성을 가져야되지 않을까요?

전해진
(사회·1)

=점심색 가방, 도서관 8월달일에서.

【수원캠퍼스】 ▲김일하(토목·1)=점심색 안경, 지난20일 공대 361호 강의실에서 ▲박경준(전자·4)=밤색서거가방, 쇼팽백, 지난 26일 학생회관 1층 로비에서

분실

분실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 ▲학생증=▲최태은(사학·88) ▲백소영(사학·89) ▲박정미(수학·87) ▲이승우(국문·90) ▲이재현(화학·91) ▲박현정(화학·88) ▲조지영(생물·89) ▲김윤희(생물·89) ▲조현식(물리·90) ▲현광진(정외·90) ▲정병선(경영·89) ▲고대영(경영·86) ▲김지태(경제·89) ▲손병상(무역·90) ▲이형주(영고·88) ▲조원배(영고·85) ▲강미림(의상·88) ▲이효정(의예·85) ▲김태형(의예·87) ▲신동환(의예·86) ▲허인숙(간호·89) ▲이남훈(한외·87) ▲정원규(성악·90) ▲권윤희(기악·89) ▲김인원(체육·89)

【수원캠퍼스】 ▲학생증=▲김선옥(영문·90) ▲이현경(일문·87) ▲안윤선(중문·89) ▲박소영(사문·90) ▲신종현(경영·84) ▲최영진(경영·90) ▲이영숙(사회·90) ▲서정경(경영·84) ▲조정원(행정·90) ▲김용길(기계·83) 조지형(기계·90) ▲정대경(전자·91) ▲정유경(조경·90) ▲황병용(식품·89) ▲장기선(임학·91) ▲최동렬(원예·85)



후5시30분 공대휴게실 ▲청량·장문=오는9일 오후5시30분 2호관 앞 돌벤치 ▲대구덕원·경영=오는 6일 오후5시30분 1호관 휴게실 ▲대원외국어=오는 10일 오후5시 2호관 앞 민주광장 ▲금성·테레사=오는 6일 오후5시30분 1호관 휴게실 ▲휘문·정신=오는 7일 오후5시30분 공대휴게실 ▲부산 동인고=오는11일 오후5시, 회기동 북대관

습득

습득자 본사 편집실로

【서울캠퍼스】 ▲이순재(신방·4)=학생수첩, 도서관~학관 건물 중간지점에서 ▲이한진(영고·4)

대학인다운 내적성숙 필요

고 있는 것 같다. 먹고 마시고 장난하고 노는 축제일색이 끝났겠다. '술집과 찾아가 줄비한 서울 시내 어느 먹자판 골목인지 시장바닥인지 모를 지경이다. 물론 축제인 이상 먹고 마



배기열
(외대교수·불문학)

시고 놀이도 해야겠다. 그러나 '대학의 축제'라면 뭔가 알맹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연극이

라든가 음악, 문학, 미술의 향연에다 각 단과 대학의 특성을 살린 화려하고 또 흥겨운 잔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외국어대학이라면 각국의 민속춤이나 노래의 경연을 한바탕 벌여볼적이지 않은가. 그러면 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몰려들어 신명이 날까. 예술의 향연에다 각종의

축제는 화려해야 한다. 더구나 '대학의 축제'라면 그 속에 신명과 탐구의 열정이 함께 있어야

학술 발표회와 심포지엄이 공존하면 그야말로 대학의, 대학인의 축제가 될 것이다. 80년대 초엽 까지만해도 우리대학의 축

제가 봄에는 학·예술제, 가을에는 체육대회로 성격이 구분되어 열렸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던 것이 어느새 슬그머니 학·예술 활동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길 없고 술집과 찾침 일색에다 어린이 놀이터의 풍물마저 여러가지 곁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희색이 만연하여

가 떨어진다. 학과의 단합이 안된다고 개탄하는 학생회 간부도 있다. 어떤 점에선 당연하지 않을까. 그래서 축제기간은 여러날 잡아 놓아도 하루 이틀이면 맥이 빠진다. 공연회 휴강만 계속 된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오전 강의로 귀가하고 만다. 무의미한 축제의 나날.

올해도 오월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우리 학생들은 이날 중도 며칠간을 술집 축제로 막을 올리고 막을 내릴 것이다. 학생들아, 인제에 올리는 우리의 빛바랜 축제, 내용 없는 축제에 귀한 시간만 허비할 것인가. 지금 이순간 각대학 각학과의 학생회 간부들은 보다 교 높은 대학인의 축제문화 창조를 위해 한번쯤 숙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

2월

5월주제

‘축제’

축제는 화려해야 한다. 어떠한 축제이든, 더구나 그것이 싱그러운 오월에 대학 캠퍼스에서 펼쳐지는 것이라면 더욱 화려해야 한다.

그러나 그 '화려함'은 내적인 것이고 절적인 것이어야 한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야단스럽다가, 시장 바닥이나 어린이 놀이터를 방불케하는 축제 분위기에서는 그걸 두고 어디 대학인의 놀이라고 하겠는가.

언제부터인지 우리 대학의 축제문화는 크게 타락하고 변질되

May 1991 5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축제의 계절 5월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것들,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모든 것들, 갈수록 막걸리 한사발 들이치고 한소리 크게 외쳐며 모두 날려버려!

젊음만으로 온몸 부대끼며 하나로 어울릴 수 있는 우리들의 축제 제기하기도 즐겁고 탈춤도 신명난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부지런히 세미나에 찾아다니며 지식욕을 충족시키고 교정 이곳저곳에서는 불꽃은 토론이 이어진다.

그리고 대학은 나이를 먹는다.

본관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여러분들이 마련한 소중한 대학행사들 알리기 위해 현대그림이 제공해 드리는 본관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자료로 만들어집니다.

널리 소개하고 싶은 문화행사 있으면 현대그림 문화사 서울 종로구 계동140-2, 전화 746-2971 로 알리주세요! 성실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